

##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 21일자

한국일보에 의하면, 국내 재벌 회사 하나가 연간 지출하는 회비가 78개 단체에 23억원이었다고 한다. 전경련 회비가 2억원, 상공회의소 회비 6천만원, 경총 4 천만원 등등이라고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힘은 돈에서 나오는데, 회비를 받는 단체가 힘을 쓰는 이유는 알 만 하다. 또한 1개 회사의 회비 납부 규모가 우리들 서민은 가히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인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축산업계 생산자 단체들의 회비 총액보다 한 사람이 내는 회비가 훨씬 더 많다. 결국 회비 23 억원은 제품값에 전가되어 소비자 부담이 되겠지만, 축산 생산자 단체도 이제는 자조금 등 외국의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수원지 물을 깨끗이 하려는 노력은 없 이 개개인이 비싼 정수기 구입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공동으로 힘을 합하는 데는 약하고, 자기 개인을 위하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정부가 돈콜레라, 오제스키 청정화를 위해서 공동 방역 단을 만들었지만 공동체 훈련이 안된 우리는 제

궤도에 오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적으로 술을 먹는 데는 돈을 쓰지만 같은 액수의 회비를 내는 데는 인색하다.

IMF 체제가 되면서 많은 서민들이 금과 달러 (\$)를 내놓았다. 국가의 위기를 힘을 모아 구하자는 뜻에서이다. 외국에서도 한국의 금모으기 운동에 경의와 찬사를 보낸다고 한다.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역시 평민들이었다. 이들이 힘을 합해 나라를 구한 것이다.

구한말 서울에 있는 고관대작들이 한일합방에 동참하였다면 농민들이 의병을 일으켜 독립운동을 하였고, 만주로 가서 독립군이 되어 싸웠다.

임진왜란 때에도 전남 지역의 농어민들이 이순신 장군을 도와 해전에서 승리하므로 임란을 조기에 끝낼 수 있었다.

이러한 예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외 없이 있었던 일이다.

부자가 금괴를 내놓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든 이유를 알 만 하다.

이제 어린이까지도 용돈을 스스로 아껴쓰고 가족이 외식하는 것도 IMF시대인데 절약해야지 하며 집에서 식사하는 것이 정착되어 간다고 한다. 돼지고기 소비홍보도 가정에서 온식구가 즐길 수 있는 요리를 개발해야 한다.

양돈장도 많은 절약을 하지만 백신까지도 절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백신의 효능을 논하기 전에 철저한 백신 접종과 소독 등 방역을 계율리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들어 심각한 정도로 TGE, PED로 자돈 폐사두수가 많다고 한다.

양돈산업의 붕괴를 보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사료업체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지만 각종 첨가제의 사용량을 절약하면 그것은 절약이 아니고 고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양돈산업의 기간이 되는 1~2천 두 규모의 중산층 양돈인들이 자리를 잡아나가고, 이들이 양돈산업을 위기에서 구하는데 앞장서야

우리나라 양돈업은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다. 이제 독자들이 이 책을 받을 때에는 문민정부는 퇴진하고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국민의 정부보다는 서민의 정부가 더욱 좋지만 국민이란 서민들을 뜻하는 것이기에 기대하여 본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는 농어업에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분이 속해 있던 정당의 이름이 국민회의 또는 평민당 등 서민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이름이었기에 많은 농민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하루 아침에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조기에 공약들이 실천되어지기를 바란다.

낙후되어 있는 농축산물 유통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농축산업계에 큰 변화를 기대한다.

하루 아침에 모든 공약을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조기에 공약들이 실천되어지기를 바란다.

낙후되어 있는 농축산물 유통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등 농축산업계에 큰 변화를 기대한다.

국민의 정부 5년이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반석 위에 올라서는 기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養豚**